



소상공인연합, 베트남 소상공인들과 협력·교류 앞장 소상공인연합회는 베트남 국영 방송 VCT3 채널과 한국 등지에서 방송 예정인 '더 드림 11' 프로그램의 한국·베트남 제작진과 '한국-베트남 소상공인 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이 한국 측 제작사인 마부컴퍼니 금성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부동산 투자권유시 허위광고와 사기죄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Q. A는 'B지역이 고속도로 개통 및 산업단지 형성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B지역 토지를 싸게 사서 고가에 팔 계획을 세우고 B지역 임야를 평당 1만원에 매수했다. 그 무렵 B지역 관할 도청이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해 작성된 보고서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산업단지가 형성되면, B지역 일대가 신도시로 건설되고 행정타운이 설립되며 고속터미널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지역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실제로 국토교통부나 B지역 관할 관청이 B지역을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확정고시하거나 그러한 계획을 확정된 바 없었다. 그럼에도 A는 국토교통부나 B지역 관할 관청에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B지역 일대를 '신규 생활권 개발구역(고속터미널, 행정타운, 택지개발)'이라고 표시한 도면을 작성했다. 그리고 소속 직원 C로 하여금 부동산 TV프로그램에 출연하게 하여 'B지역의 현재 시세는 평당 10만원 내지 20만원인데, 3~5년 후에는 평당 40만원 내지 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게 했다. 그 후 A는 마치 C가 B지

역 부동산 정보에 정통한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영상을 편집하였다. 그리고 C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돌려 사무실 방문을 유도하게 하고,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A가 임의로 작성한 도면 내지 임의로 편집한 TV방송 프로그램 등을 보여주며 'B지역 일대가 유망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다'며 매수를 권유하도록 했다. 이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A가 평당 1만원에 매수한 임야를 평당 8만원 내지 9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A와 C에게 사기죄가 성립할까? 부동산 투자권유시 목적물에 대한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위 사례에서도 일부는 객관적 사실이고, 일부는 과장과 허위인데, 모든 과장과 허위가 위법,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지는 않으므로, 부동산 투자시 제공받은 정보를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험하다. 부연하면,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거래에 있

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고지한 경우라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A와 C가 투자자들에게 언급한 내용 중 'B지역 인근에 고속도로 인 터체인지가 개통되고 산업단지가 형성된다'는 내용은 당시 진행 중에 있었고,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산업단지가 형성되면, B지역 일대가 신도시로 건설되고 행정타운이 설립되며 고속터미널이 들어설 것이다'는 내용은 관할 도청이 지역개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주어 작성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비록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다. 따라서 A와 C가 B지역 일대를 '신규 생활권 개발구역(고속터미널, 행정타운, 택지개발)'이라고 표시한 도면을 임의로 작성하고, TV방송 프로그램을 일부 편집한 사항이 있지만,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투자권유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시 제공받은 정보를 그대로 믿고 투자를 감행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보호도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아빠 일터 방문, 응원편지·음료 전달

롯데칠성음료, 아빠힘내세요 캠페인

롯데칠성음료가 무더운 여름에 힘들게 일하시는 아빠를 응원하고 싶은 자녀의 마음을 담아 시원한 음료를 전달하는 '아빠 힘내세요'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아빠 힘내세요 캠페인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드리고자 롯데 계열사의 특성과 역량을 활용해 매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나눔 프로젝트다. 롯데칠성음료는 종합음료기업으로서 역량을 살려 가족 간에 음료를 통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캠페인을 기획했다.



롯데칠성음료는 롯데 CSV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받고 내부 심사를 거쳐 총 20명을 선정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달부터 20명의 아빠의 일터에 직접 방문해 자녀의 응원편지와 함께 스포츠음료 게토레이, 생수 아이시스, 커피 칸타타 등 음료를 40박스씩 전달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타이어나눔 지원 사업' 하반기 공모

한국타이어나눔재단, 2차 진행 전국 복지기관 이동성 개선 지원

한국타이어애펀테크놀로지 사회공헌재단인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이동성 개선이 필요한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지원하는 '2019 타이어나눔 지원 사업'의 하반기 공모를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의 '타이어나

눔 지원사업'은 한국타이어의 핵심 비즈니스 특성인 '이동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2차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9월 15일까지 한국타이어나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업무용 9인승 이상 15인승 미만 승합차 또는 2000cc 이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비영리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에트리홀딩스, 윤상경 신임 사장 선임

에트리홀딩스가 1일 윤상경 아이에셋 대표(사진)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022년까지 3년이다. 윤 신임 사장은 공공부문 기술사업화와 관련 투자분야에서 우수한 역량과 폭넓은 경험을 보유해, 에트리홀딩스 사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됐다.

윤상경 사장은 나노재료화학박사학위를 마치고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원과 삼성전기, 아이디벤처스 등을 거처온 전문가다. /김재용 기자 juk@

CJ나눔재단, 소녀들에게 식품 속 과학기술 교육

지역 아동센터 여중생 40명 '2019 소녀과학캠프' 진행

CJ그룹이 여름방학을 맞은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식품 속 숨은 과학이야기를 전하는 '소녀과학캠프' 행사를 진행했다.

CJ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CJ나눔재단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14~16세 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019 소녀과학캠프'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유튜버 '안될과학팀'의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들' 특강 ▲CJ제일제당의 R&D 시설 투어(CJ블로썬파크·CJ블로썬캠퍼스) ▲CJ제일제당 식품연구원들과의 진로 멘토링 ▲



CJ나눔재단이 '2019 소녀과학캠프'를 진행했다. /CJ그룹

'푸드테크' 강의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푸드테크' 강의에서는 가정간편식(HMR)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온도, 멸균, 패키징 등 첨단 과학기술들에 대해 교육했다. '소녀과학캠프'는 CJ그룹이 유네스코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소녀교육 캠프'

페인'과 연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 여학생들의 교육 수준은 높지만 IT업계 및 기술·공학 분야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은 현저히 낮은 현실에 맞춰 기획됐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인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류광훈 △관광연구본부장 김영준
-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 실증사업단 △사업관리부장 김학춘 △기술관리부장 류정수 △건설관리부장 송인택
- ◆유한양행 △상무(렌탈 산업부장) 심인보
- ◆KTB투자증권 △신규선임(상무부) △P12팀장 신용훈 △전보(부장) △내부회계관리팀장 이대전
- ◆오렌지라이프 △부서장 △GA채널부부

장) 이태정
◆광주 가톨릭평화방송 △승진 △보도제작국 부국장 김선균

부음

▲김옥남씨 별세, 김화영·김현영(다우CN D 감사)·김현정(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김화희씨 모친상, 김용호·김나영·김광현씨 조모상 = 7월31일 오후 10시40분, 부산 인창요양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3일 오전 6시30분. 051-464-5831.

▲유재호(아시아태평양교류연구원(Center for Asia Pacific Exchange) 원장)씨 별세, 유양석(국민대 교수)·유효석(재미)씨 부친상 = 7월14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장례미사 3일 오전 9시45분(현지시간) 호놀룰루 피터 앤 폴 성당. 010-5228-9754.
▲김요길씨 별세, 김이경(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전 거례하나 사무총장)·김숙현·김지현·김대업씨 모친상, 박경순(전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강성구·함종훈씨 장모상 = 1일 오전 6시3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오전 5시. 02-2072-2014.
▲최환경씨 별세, 최남철(삼성물산 부사장)·효자·혜정씨 부친상, 권호기(LG이노텍 부장)·최형석(삼성전자 부장)씨 장인상 = 1일 낮 12시 40분,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3일 오전 6시, 장지 경남 사천시 선영. 010-3360-6574.
▲이정희씨 별세, 김기호(삼영건설 상무)씨 모친상 = 8월 1일 오전 11시25분, 김포 우리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3일 오전 9시. 031-999-1444.

▲이창구씨 별세, 김영철(경향신문 태안지국장)씨 부부상 = 1일 오전 5시,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회천농협장례문화원, 발인 3일 오전 10시. 031-864-4444.
▲김양림씨 별세, 정금조(KBO 사무국 운영본부장)씨 모친상 = 1일 오전, 전남 나주 애향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061-334-9000.
▲김요길씨 별세, 김이경(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씨 모친상 = 8월 1일 오전, 해동동 서울대병원 8호실, 발인 3일 오전 10시. 010-6592-0204.